

## 잠수작업자들의 현황 파악 및 건강장애에 관한 연구

잠수작업은 감압병 등 이상기압에 의한 직업성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작업이지만, 우리나라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, 작업환경 및 조건,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. 2005년에 직업병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잠수작업자의 규모를 추정하고, 작업 중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산업보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잠수작업자들의 현황 파악 및 건강장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. 이 연구의 세부 목표는 우리나라 잠수작업자의 규모를 추정과 잠수용 장비 등 작업환경 및 조건 파악, 잠수작업자들의 잠수 위험도 인식수준 및 건강상태의 조사 등이었다. 이를 위하여 주요 업종별 법정 기준인력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, 국가기술자격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, 잠수작업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고, 산업잠수 및 어업잠수 근로자 총 179명을 임의 선정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그 결과, 국내 잠수작업자 전체규모는 1,840-2,180명(산업잠수는 1,040-1,380명, 어업자수 800명)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, 잠수작업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웠다. 조사대상 잠수 작업자들은 호흡기(후카), 공기압축기 송기관 등 잠수용 장비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크게 낮아 감압병 등 잠수관련 질환 발생에 취약하였으며, 국내 잠수현장에 설치된 감압 챔버는 4대에 불과하

였다. 잠수에 대한 위험도 인식 및 감압기준 준수, 유해위험요인 종류 및 업종별 잠수경력, 경험 최대심도, 급상승 경험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, 어업잠수자들은 산업잠수자들에 비해 잠수작업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낮았다. 조사대상 잠수작업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질병 경험 유병률은 41.3%(74/179)였으며, 감압챔버 치료경험률은 30.2%였다. 어업잠수 근로자의 70.1%가 건강 이상증상 경험을 했고 48.1%가 감압챔버 경험을 한 반면, 산업잠수는 각각 19.6%와 16.7%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, 잠수작업환경에 따라 건강 영향의 차이를 보여주었다. 건강이상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업종과 급상승 경험이었었는데, 급상승 경험은 잠수질환 경험과 자각적 건강 이상증상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.

잠수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잠수의학과 관련된 의료기관 등 시스템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현행 법정 건강진단에서도 정밀 진단 또는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. 잠수작업은 『유해·위험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』에 적용을 받으므로 최소 요구경험과 숙련도를 위한 교육 내용과 시간도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. ☞

제공 /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